

농림수산식품부

품목별 생산·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 종합연구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생산·유통구조 개선 대책 등을 상시 연구하는 모임인 '품목별 연구회'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연구회는 주요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비농업계(산업, 문화계 등)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액, 수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쌀(식량1), 고추·버섯·배추·딸기·토마토·파프리카·인삼·마늘·양파(채소·특작9), 사과·배·감귤·포도·단감·백합(과수6), 한우·돼지·닭·계란·우유·양봉·오리(축산7), 납치·전복·김·고등어·멸치·오징어(수산6) 등 29개 품목에 대한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분야 등 품목산업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29개 품목의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과 해결과제에 대한 정책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연구모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품목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키로 했으며, 초기단계는 농식품부의 품목 담당부서에서 연구회 운영을 주관하고, 앞으로 품목별 대표조직이 설립되면 동 대표조직에서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9년도 축산식품 HACCP 순계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축산식품의 HACCP 저변확대 및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학계, 관련협회, 축산물직업장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축산식품 HACCP 순계 심포지엄'을 지난 6월 11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축사육단계에서 식육판매단계까지 'farm to table' 전 과정에 HACCP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HACCP연구회(홍종해 회장)와 공동으로 학계·산업계·관계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HACCP 전문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명예교수인 Dr. John E. Rushing 교수의 미국 USDA의 HACCP 운영 및 평가제도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김문준 부장



가·관·단·체·소·식

(CJ 제일제당)의 '외부기관 및 자체 HACCP제도의 비교분석 소개', 유병삼 품질본부장(서울우유)의 '업체에서 바라보는 HACCP 평가제도 개선방향', 황인진 수의사무관(검역원 축산물안전과)의 '정부의 축산식품 HACCP 평가제도 개선방향'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검역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업계 및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미국의 HACCP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업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향후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축산식품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고온기 축종별 가축 사양관리요령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혹서기를 대비한 축종별 가축 사양 환경 관리요령을 지난 6월 22일 발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그동안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온도가 1~2℃ 상승함에 따라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른 사양 환경 관리대책 가운데 온도저하를 위한 환경관리 방법으로 공기의 속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닭의 관리에서 대부분 터널환기 위주로 환기를 하는데 계사 내의 환기 횡 작동으로 닭 주위의 공기는 매초 0.2~0.5%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 닭의 체감온도가 3℃ 낮아진다.

지나친 풍속은 닭의 체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설사나 기침 등의 원인이 되지만, 터널환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사 내의 높은 열을 가진 공기를 계사 밖으로 배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여름철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터널환기를 보완할 수 있는 중계 횡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와 산·연 교류협약 체결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지난 6월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축산연구·경제사업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국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 지역 축협 축산사업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와 경제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 정부시책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한우 명품화와 조사료 생산 등 축산농가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축산과학원과의 기술 교류 협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기관위상 차원에서 개별 농·축협과의 협약체결보다는 농협중앙회와의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현안문제는 과제별로 연구협약을 맺어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가축개량 및 품종보급,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축협을 연계한 축산 신기술 보급, 조사료 확보를 위한 국내 육성 신종 사료작물 재종포 운영 등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연구와 경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부 공무원으로 축산과 행정분야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 낙농진흥회 상무직을 역임했다. 이어 2004년 6월 방역본부 관리국장으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행정체계를 정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데 공헌했다.

한편 방역본부는 농식품부 직제개편에 따라 조직을 4개팀에서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홍보교육팀, 방역사업팀, 검역팀, 소비안전팀으로 확대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송인곤 전무 취임식 가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6월 11일 송인곤 전무 취임식을 가졌다.

송인곤 전무는 지난 1975년부터 27년 동안 농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상지대학교와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원주의 상지대학교(총장 유재천)와 지난 6월 5일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의 내용은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학술·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가·관·단·체·소·식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 상호 공동연구 사업 등 협력 가능한 분야의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 축산물HACCP에 관한 교육관련 업무 협조 ▲ 기타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이다.

곽형근 원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상호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학술·연구 기술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한 연구 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임원진 HACCP 지정 현장 방문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축산물 HACCP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2009년 2차 소비자 HACCP 현장방문을 지난 6월 25~26일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 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원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황명자 부회장 및 소시모 강

광파 이사를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 30여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이번 견학은 식육판매업소 2곳(롯데쇼핑잠실점, 황우캐터링)과 알가공(조인), 도계와 계육가공(체리부로), 유가공(롯데삼강), 오리가공(다영푸드) 순으로 진행되었다.

식육판매 HACCP 지정업체 방문 시에는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단의 최희중 국장도 참관해 식생활 안전과 위생을 위한 업체의 노력을 확인하고 식생활 안전을 위한 농식품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방문 후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의 2009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설명과 HACCP 진행사항, 농장 HACCP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곽형근 원장은 “소비자단체 임원진들이 직접 HACCP 추진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업체들의 위생 및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와 소비자의 징검다리 역할도 함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 방향’ 심포지엄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지난 6월 17일 aT센터에서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농산물 잠재수출 시장 분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분석 대상인 12개 품목의 국제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5배에서 18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 형



성되어 있다”며 “사과와 닭고기의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18배에 이르고 토마토와 돼지고기는 각각 12배와 10배 수준”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교역액은 돼지고기 180억 달러, 닭고기 93억 달러, 쌀 7억 달러, 절화 59억 달러에 이르고 교역액이 적은 오이와 복숭아의 경우도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은 유럽이지만 향후 수출 마케팅은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수출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과일과 같은 품목은 미국과 중국이 최대경쟁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의 장애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 설립과 수출 조직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수출 및 지원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농식품 수출 관련 여러 정책 간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 수출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출대표조직 설립’을 주장해야 한다고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주장하며,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축산관련학회협의회(회장 강창원), 축산발전협의회(회장 김대현) 대표자들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앞에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축산 대표자들은 FTA, 사료값, 경기불황을 비롯 대내외 악재들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농협 사업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의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범축산 연대를 위해 ‘축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비대위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앞으로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대정부, 대국회 활동,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투쟁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관·단·체·소·식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인증제’ 도입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협회 회원들이 생산한 토종닭에 협회측에서 자체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토종닭 인증제를 위한 경영컨설팅계약을 (주)더매니저먼트앤컴퍼니(대표이사 노시천)와 완료했다고 지난 6월 5일 밝혔다.

토종닭 인증제는 백세미가 토종닭으로 둔갑 판매되면서 정상적으로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토종닭 생산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KISTOCK2009 부스 유치 100% 달성 173업체 684부스 참가 예정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 K2009) 참가업체 모집이 2009년 6월 16일 기준으로 100% 완료되었다. 올해 박람회에는 110여개의 축산기자재업체, 20여개의 사료 관련업체, 18여개의 동물약품업체와 협회 및 국가 기관 등 총 173업체 684부스가 유치될 예정이다. 당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업체 유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KISTOCK2009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KISTOCK2009는 예년 박람회보다 크게 3가지가 달라졌다”며 “첫 번째는 전시기간의 연장인데, 이는 박람회 참가업체들이 전시 준비 및 철거 등의 시간을 제외하면 정작 전시기간이 길지 않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올해는 하루 더 연장해 3박4일 동안 진행돼 행사기간 연장으로 참가업체들은 더 많은 시간 제품 및 회사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둘째는 전시장의 확대로 올해는 대전무역전시관(KOTREX) 옥내·외뿐 아니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도 함께 진행된다”며 “전시장의 확대로 인해 옥외 부스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해 냉방, 전기 및 주차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올해는 대형 농기계 업체들이 대거 참가함에 따라 축산 농가에 필요한 대형 트랙터들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KISTOCK2009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참가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 www.kistock.kr